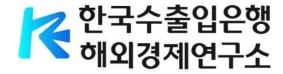
# 요 르 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# 2014. 7.

I . 일반개황 1
Ⅱ. 경제동향 2
Ⅲ. 정치·사회동향 8
IV. 국제신인도 12
V. 종합의견 15



# I. 일반개황

면 적	89천 km²	G D P	336억 달러 (2013년)
인 구	7.3백만 명 (2013년)	1 인 당 GDP	4,583달러 (2013년)
정 치 체 제	입헌군주제	통 화 단 위	Jordanian Dinar (JD)
대 외 정 책	친서방, 친아랍	환 율(달러당)	0.71 (2013년 평균)

- □ 아라비아 반도 서북부에 위치한 요르단은 한반도의 1/2 규모의 국토와 약 7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, 이스라엘, 시리아, 이라크 및 사우디아라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.
- □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운송, 관광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발달하여 에너지, 식료품 등의 수입의존도가 높으며 대외경기 변동에 민감함. 2009년 이후 세계경기 침체 및 이라크, 시리아 등 주변국들의 정세 불안의 영향으로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음.
- □ 입헌군주국이지만 국왕에게 통치권이 있으며, 1999년 즉위한 Abdullah 2세 국왕은 군부와 대다수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계속하고 있음. 2011년 초 중동 민주화 혁명 당시 반정부 시위가 발발했을 때도 국왕의 퇴위를 요구하지는 않았으며, 정부는 평화시위를 보장하여 무력 충돌을 최소화하였음.
- □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대 중동 진출의 교두 보 및 이라크, 이스라엘, 팔레스타인 등 주변국들의 완충지대로서의 역 할을 수행하면서 미국,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원조를 받 고 있음.

# Ⅱ. 경제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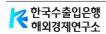
# 1. 국내경제

## □ 지역 정치불안 및 내수 저조로 2~3%대 저성장 지속

- 요르단 경제는 2012년에는 FDI 유입과 관광수입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나, 재정적자 개선을 위한 정부의 긴축 재정정책이 내수 부진으로 이어져 전년(2.6%)과 거의 동일한 수준인 2.7%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음.
- 2013년에는 걸프협력위원회(GCC)\*의 인프라 투자자금 지원(2016년까지 총 50억 달러 규모) 등 FDI 유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내전과 그에 따른 난민 유입으로 사회불안이 고조되는 등의 상황으로 경제성장률이 2.8%에 머물렀음.
  - \* Gulf Cooperation Council: 바레인, 사우디아라비아, 오만, 카타르, 쿠웨이트, UAE의 6개국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
- 2014년에는 인광석 생산량 증가, Aqaba 항만 공사 등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, 태양광발전소 건설 추진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3.5%로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, 시리아와 이라크의 내전 상황 등 주변국의 정세 불안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.

#### □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보조금 감축 등으로 개선 전망

- 유류보조금 폐지 등 정부의 재정지출 절감 노력으로 2012년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9.8%로 전년(12.7%) 대비 개선되었으며, 2013년에도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인상, 전년도 말의 유류보조금 폐지의 효과 등에 힘입어 동 비율이 8.2%로 하락하였음.
- 2014년에는 전력 보조금의 추가 감축과 정부의 조세 수취 증대 노력 및 경제성장률 향상 등으로 인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6.7%로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.



- 현재 재정적자 보전은 GCC로부터의 무상원조와 양허성차관, 지난 6월 24일 발행한 10억 달러 규모의 5년 만기 유로본드(미국 정부가 보증)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.
- 다만, 차관 도입으로 인해 정부의 총부채(총외채+국내순부채) 규모가 증가하여 2013년 말 GDP의 79.6%에 달하는 등 정부의 재정부담이 과중해지고 있음.
- □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보조금 폐지로 상승, 2014년에는 수입물가 안정 에 따라 하락 전망
  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2년에는 유류보조금 폐지, 에너지 가격 인상 등의 요인으로 전년(4.4%) 대비 소폭 상승한 4.8%를 기록하였으며, 2013년에는 공공요금 인상 및 보조금의 추가 폐지의 영향으로 물가상 승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5.5%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.
  - 그러나 2014년에는 전력요금 인상 계획 등의 물가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식료품의 국제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안정에 힘입어소비자물가상승률이 3.2%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.

< 丑 1 >

주요 국내경제 지표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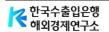
구 분	2010	2011	2012	2013 <sup>e</sup>	2014 <sup>f</sup>
경 제 성 장 률	2.3	2.6	2.7	2.8	3.5
재 정 수 지 / G D P	-7.4	-12.7	-9.8	-8.2	-6.7
소 비 자 물 가 상 승 률	5.0	4.4	4.7	5.5	3.2

자료: IMF, EIU.

# 2. 경제 구조 및 정책

#### 가. 구조적 취약성

- □ 부존자원이 미미하고 산업기반이 약한 수입 의존적 경제구조
  - 요르단은 인광석, 가성칼리 등 일부 광물 외에 부존자원이 거의 없음.



- 금융, 부동산, 운송 등 서비스업이 GDP의 약 67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제조업은 주로 섬유, 비료, 화학원료 등 원자재 산업 위주로 이루어져 그 외 생활용품과 산업용품 등은 수입에 의존함. 농업 생산량도 미미해 국내 식료품 수요량의 약 90%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.
  - 산업별 GDP 구성(2013년): 서비스업(67.0%), 제조업(29.9%), 농업(3.2%)

#### 나. 성장 잠재력

#### □ 지정학적 입지를 활용하여 지역 내 물류 허브로의 성장 가능성

- 요르단은 홍해 연안의 Aqaba 항을 기점으로 시리아, 이라크, 팔레스타 인을 커버하는 서부 중동 지역의 물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.
- 현재 예산규모 50억 달러의 Aqaba 신항만 및 3개 대규모 터미널(일반화물 및 자동차용 터미널, 곡물 터미널, 여객선 전용 터미널) 건설 프로젝트가 2014년 가동 개시를 목표로 공공-민간협력(PPP) 방식으로 추진되는 등 중동의 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.

#### 다. 정책성과

#### □ 지속적인 민영화 정책 추진

- IMF는 비대한 공공부문과 막대한 재정적자를 요르단 경제의 취약점으로 지적해 왔음. 이에 Abdullah 국왕은 국영기업 민영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삼고 전력, 석유, 운송 등 부문별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.
  - 현재까지 칼륨개발공사(지분의 52% 매각), 인광개발공사(지분의 37% 매각), 국영 항공사 등의 국영기업들이 민영화되었으며, 국영 정유회사의 민영화 작업도 진행 중임.
  - 전력 부문의 경우 NEPCO(국영 전력공사)는 현재 송전만 담당하며, 발전과 배전은 모두 민영화됨. 단, 발전기업인 중앙전력공사(CEGCO) 는 요르단 정부가 49%의 지분율을 유지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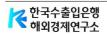


## □ 적극적인 대외개방 및 외국인투자 유치

- Abdullah 국왕은 자본 및 기술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대외 개방과 투자 유치를 강조하여, 현재까지 미국, EFTA(유럽자유무역지대), 싱가포르, 아랍 18개국과 FTA(자유무역협정)를 체결하였음.
  - 또한 대미관세면제특구(QIZ: Qualified Industrial Zone) 및 Aqaba 경제특구(Aqaba Special Economic Zone)를 조성하는 등 투자제한 완화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있음.
-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FDI 유입액은 2006년 사상최대치인 32억 달러에서 2012년 15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나, 2013년 18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는 2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  - 연도별 FDI 유입(억 달러) : 28(2008) → 24(2009) → 17(2010) → 15(2011) → 15(2012) → 18(2013) → 20(2014)

# □ 에너지 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해 에너지 인프라 투자와 신재생에너지 개발 추진

- 정부는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1,000MW급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2035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60%를 원자력으로 충당할 계획임(현재 화석연료 비중 95%).
- 또한 2020년까지 전체 전력수요의 10%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계획 아래 2015년까지 Wadi Rum 지역에 150~300MW 규모의 태양열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.
- 2016년까지 매년 10억 달러 이상 유입될 GCC의 인프라 투자 지원금 은 주로 에너지 분야에 투자될 예정임.
  - 요르단 정부는 Aqaba LNG 터미널 건설, 이라크-요르단 간 송유관 건설, 셰일 오일(shale oil) 생산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에너지 수급구조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.



#### □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유류보조금 폐지 등 긴축정책 추진

- 요르단은 IMF의 권고에 따라 유류 및 식료품 보조금을 폐지하고 공공 요금을 인상하는 등 비인기성 정책을 시행하며 재정적자 감축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.
  - 2012년 11월 유류보조금을 폐지하였으며, 2013년 8월에는 밀가루 보조금 폐지와 직접 현금지원 방식으로의 식료품 보조금 체제 전환을 발표하였으나 국민적 반발이 강하여 현재까지 실행이 지연되고 있음.
  - 요르단 정부는 기존에 전기요금을 전력생산 비용의 약 60%로 설정해 왔으나, 2013년 8월 15일 정부 부처, 병원, 학교 등 일부 부문에 대해 전기요금을 5~10% 인상하였음.
- 또한 정부는 2012년 11월 각료 인원 감축, 정부 부처 신규채용 보류, 독립 공공기관 예산 15% 감축 등을 발표하였으며, 2013년 6월에는 예 산지출 삭감을 위해 일부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결정하였음.

## 3. 대외거래

#### □ 수입 의존도가 높아 만성적인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지속

- 에너지와 식료품의 과도한 대외의존은 물론 전자제품, 자동차 등 공산 품에 대한 높은 수입 수요 등의 영향으로 상품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.
  - 요르단은 연료 수요의 약 96%와 식료품 수요의 약 90%를 수입에 의 존하여, 경상수지와 물가상승률이 국제유가 및 식료품 가격 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함.
- 2011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상품수지가 악화되고 중동 민주화 시위의 영향으로 관광수입이 급감하여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12.0%까지 확대되었음. 2012년에도 유가 상승세 지속, 인광석 생산 감소, 대외원조 수취액 감소로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18.4%에 이르렀음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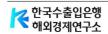
- 최근 이집트로부터의 천연가스 수입이 이집트의 정치적, 사회적 불안 의 영향으로 차질을 빚게 되자 상대적으로 비싼 석유를 대체제로 수입하면서 상품수지가 계속 악화되었음.
- 2013년에는 걸프 지역 국가들의 경기 회복으로 동 국가들에 취업한 요 르단인 근로자들의 송금액이 증가하고 관광수입이 회복세를 보여 경상 수지 적자는 GDP 대비 10.0%로 개선되었음. 2014년에도 동일한 추세 가 지속되는 한편 연료 및 식료품의 수입가격 하락으로 동 비율이 8.4%로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.

#### □ 단기외채잔액비중 등 외채관련 지표는 미흡하나, D.S.R은 양호한 수준

- 외환보유액은 FDI 유입 감소, 경상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2012년 말전년 대비 30.0% 감소(78.7억 달러)하였음. 그러나 IMF의 대기성차관지원 등에 힘입어 2013년 말 130.1억 달러(월평균 수입액의 6.2개월분)로 증가하였으며, D.S.R도 2013년 말 기준 4.8%로 양호한 수준임.
- 우방국의 양허성 차관 및 IMF의 차관 지원 등으로 총외채잔액이 증가 세를 보이면서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이 2010년 75.7%에서 2012년 128.5%로 악화되었으나, 이후 외환보유액 증가로 동 비율은 2013년 84.2%로 낮아졌음.

#### □ IMF의 대기성차관 지원 계속

- 2012년 8월 IMF는 2011년 중동 민주화 시위 영향 등으로 침체된 요르 단 경제의 안정을 위해 3년간에 걸친 20.6억 달러의 대기성차관(SBA) 지원을 승인하고 이후 10.4억 달러를 지급하였으며, 2014년 4월 경제개 혁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여 하반기 중 2.6억 달러를 추 가 지급할 예정임.
  - IMF는 상기 검토보고서에서 요르단 정부가 시리아와 이라크로부터의 대규모 난민 유입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초의 약속대로 신중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 중이라고 평가하는 한편,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세제개혁 추진 등을 주문하였음.



## □ 미국과 대출보증협약 체결

○ 요르단 정부는 2013년 8월 미국과 대출보증협약을 체결하여 향후 7년 간 국채 12.5억 달러에 대해 미국 정부의 보증을 받게 됨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됨.

< # 2 >

주요 대외거래 지표

(단위: 백만 달러, %)

구 분	2010	2011	2012	2013 <sup>e</sup>	2014 <sup>f</sup>
경 상 수 지	-1,882	-3,468	-5,694	-3,361	-3,024
경 상 수 지 / G D P	-6.8	-12.0	-18.4	-10.0	-8.4
상 품 수 지	-6,794	-8,819	-10,544	-11,486	-11,250
수 출	7,028	8,006	7,887	7,922	8,469
수 입	13,823	16,826	18,431	19,408	19,719
외 환 보 유 액	12,831	11,242	7,869	13,010	14,375
총 외 채 잔 액	17,129	17,643	18,907	22,238	24,557
총 외 채 잔 액 / G D P	62.3	61.2	61.1	66.2	68.4
D S R	4.5	4.9	5.4	4.8	4.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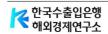
자료: IMF, EIU.

# Ⅲ. 정치·사회동향

# 1. 정치안정

#### □ Abdullah 국왕에 대한 지지와 통치는 안정적

- 요르단은 입헌군주제 국가임에도 국왕이 외교, 국방, 행정 등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음. 1999년 즉위한 Abdullah 국왕은 군 부 및 대다수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, 부패 척결, 행정 투 명성 증대, 금융제도 개선 등 개혁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.
- 아울러 2005년 11월 국가 개혁방안인 National Agenda를 발표, 이를 통해 선거법, 정당법, 연금법, 정부 회계 및 사법제도, 노동법 등 정치, 경제, 사회 분야에 걸쳐 향후 10년 간의 국가 개혁에 관한 비전을 제시하고 추진 중임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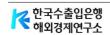
○ 다만, 요르단 사회의 뿌리 깊은 인종주의(팔레스타인계 이주민에 대한 차별)와 무슬림형제단으로 대표되는 이슬람 보수주의 세력의 반대 등 이 개혁 추진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.

#### □ 선거법을 둘러싼 야당의 반발로 정치불안 지속

- "아랍의 봄"으로 인해 고조된 정치 민주화 요구에 따라 정부는 2011년 9월 30일 헌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였음.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및 독립된 선거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, 야권의 핵심 요구사항인 다수당에 의한 정부 구성(의회에서 총리를 선출) 등은 배제되었음.
- 또한, 야당은 의회 선거의 득표율이 실제 의석 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, 개정된 선거법에 이 내용이 제외 되는 등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만이 지속되고 있음.
  - 요르단 의회는 양원제로, 상원의원(60명)은 국왕이 임명하며 하원의원 (150명)은 선거에 의해 선출됨. 그러나 하원 의석의 과반수 이상이 친국왕 세력인 무소속 의원(부족 대표)에 안배되어 있어 투표 결과가 의회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.
  - 현재의 선거법에 의하면 하원 150석 중 108석은 친 국왕 세력인 무소속 의원(부족 대표)이 점유하고 15석은 여성에게 할당되며, 나머지 27석만이 투표에 의해 결정됨.

## □ 야당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은 현재까지 성과 없음

- 2012년 10월 내각 개편 결과 임명된 Abdullah Ensour 총리는 2013년 1월 총선 후 출범한 내각에서도 총리로 재임명되었음. Ensour 내각은 사회안정을 위한 각 정파의 정치 참여를 추진 중이나, 야당이 선거를 보이콧하여 난항을 겪고 있음.
  - 최대 야당인 이슬람행동전선(IAF, 무슬림형제단의 정치적 기구) 등 야 권은 개정 선거법에 대한 반발로 2013년 1월의 총선 참여를 거부하였으며, 제도권 외의 정치활동(거리 시위 등)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.



○ 다수당에 의한 정부 구성 등 야당의 요구가 전면 수용될 경우, 요르단 인구의 약 60%를 차지하는 팔레스타인계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IAF 등 이슬람주의 정당이 정부를 장악하여 지금까지의 실리주의적 외교정책을 폐기함으로써 동 지역의 정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음.

# 2.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

#### □ 물가 상승 및 생활고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 발생

- 2012년 11월 정부의 유류보조금 폐지에 따른 유가 급등(용도에 따라 14~50%)에 대한 불만으로 전국에서 시위가 발생하였으며, 2013년 말에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시위가 발생하는 등 생활고와 관련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음.
- 2014년 4월 22일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인 남부 Maan주에서 발생한 무 장괴한과 헌병대간 총격사건의 와중에 민간인 1명이 사망하자, 분노한 주민들에 의해 폭력시위가 발생하였음.

#### □ 인접국들로부터의 지속적인 난민 유입으로 사회불안 가중

- 인접국들인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내전 또는 분쟁이 계속되면서 이들 국가로부터 난민들이 요르단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음. 이에 따라 부동 산 가격 등 물가가 상승하고 보건, 교육, 범죄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 회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.
  - 이라크 전쟁 이후 유입된 이라크 난민 50만여 명 중 30~40만 명이 불법 체류하고 있음. 최근 급증하는 시리아 난민은 2014년 6월 말 기준약 70만 명으로 요르단 인구의 10%에 육박함.

#### □ 인권보호를 위한 정부의 개혁 성과는 미미한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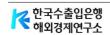
○ 정부는 인권보호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, 구금자에 대한 학대 와 고문, 자의적 체포와 구금, 불투명한 조사 과정, 보안 당국의 신뢰 성 부족, 사법절차 관여 등 문제점이 상존함.



- 연금, 사회보장, 상속, 노동, 이혼, 여행의 자유, 시민권 등의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전통적이고 광범위한 차별이 존재하며, 특히 명예살인\*의 경우 연간 20여 건이 발생하고 있음.
  - \* 이슬람권 국가에서 집안의 여성이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(실제로 는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결혼 등 개인의 자유의지를 실행에 옮겼다는 이유만으로) 아버지, 오빠, 남편 등 가족의 남자 구성원이 해당 여성을 살해하는 악습이며, 대부분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음.

#### □ 토착 요르단인과 팔레스타인계 주민간의 갈등 상존

- 요르단 강 동안(East Bank)에 거주하는 토착 요르단인은 전체 인구의 30%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, 국왕과 군부-부족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권력을 장악해 옴.
- 1948년 이후 요르단으로 유입된 팔레스타인계 주민들 및 그 2세대는 요르단 전체 인구의 60%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.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난민 신분이며 정치, 경제적으로 차별받고 있어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함.
  - 팔레스타인계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온 무슬림형제단 계열의 이슬람행 동전선(IAF)은 1989년 하원의원 선거에서 약 30%의 의석을 차지한 바 있으나, 2007년 의회 선거에서는 5.4%에 그쳤으며 2013년 1월 총선 참여를 거부한 이후 지방선거 참여도 거부하고 있음.
- 토착 주민과 팔레스타인계 주민간 입장 차이로 인해 정부에 대한 요구 도 양극화되어 정치개혁의 방향 설정 및 진행이 지연되고 있으며, 국 왕 주도의 정치 개혁 프로그램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 불만이 지속되고 있음.
  - 팔레스타인계 주민들이 주도하는 도시 하층민의 시위는 정치 자유화, 정부기구의 대표성 강화 및 경제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반면, 토착 요 르단인들은 제도적 특권 유지, 정부 지원금 확대를 요구하면서 공공 부문 현대화에 반대하는 입장임.



# 3. 국제관계

## □ 미국과의 군사적, 경제적 교류 강화

- 미국은 요르단에 연간 6.6억 달러(경제지원 3.6억 달러, 군사지원 3억 달러)를 정기 지원하는 최대 원조국으로, 2013년 7월 시리아 난민 수용 등 지역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요르단에 3.4억 달러의 경제원조를 추가 지원, 연간 총 1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음.
  - 시리아 내전 상황이 악화되자 미국은 2013년 6월 요르단과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였으며, 사실상 요르단 주둔 미군을 증강 배치함.
  - 요르단은 이라크 전쟁 이후 전통적 중립 외교노선에서 친미 노선으로 외교정책을 변경하였으며,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계 주민의 반미 감정 이 전보다 더 크게 잠재적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.

#### □ 주변 중동 국가와 원만한 관계 유지

○ GCC 국가들은 요르단의 수니파 왕조를 지지하여 경제적 원조를 지속하고 있으며, 2013~16년에 걸쳐 5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약속함. 다만, 2011년 이슈화되었던 요르단의 GCC 가입은 쿠웨이트와 사우디 아라비아의 반대로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임.

# Ⅳ. 국제신인도

# 1. 외채상환태도

#### □ 여러 차례의 리스케줄링 경험

- 요르단은 파리클럽과 1989~99년 중 5차례에 걸쳐 총 8억 달러의 채무에 대해 상환을 연기하였으며, 재정적자가 지속되자 2005년에 또다시 총 외채의 17%를 2007년까지 상환 연기한 바 있음.
  - 2013년 9월 말 현재 IMF와 세계은행에 대한 연체는 없음.



## □ 외채의 조기상환을 실시하는 등 채무상환 태도는 긍정적

- 2007년 10월 요르단 정부는 파리클럽과 총 21억 달러의 대외 부채를 11% 할인하여 조기상환(19억 달러)하는 데 합의하여 2008년 중 상환을 완료하였음.
  - 동 조기상환은 요르단의 견실한 경제성장 및 양호한 외채관리 전략 등에 기인한 것으로, 2000년 이후 진행되어 온 민영화에서 발생한 수 익 등으로 외채를 상환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.

# 2. 국제시장평가

#### □ 2013년 중 주요 기관의 국가신용 평가등급 하향 조정

- OECD는 2014년 1월 개최된 국가위험평가 전문가회의에서 경상수지 적자 지속, 대내외 정치상황 불안정 등의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GCC 국가, 미국 등으로부터의 지속적인 금융지원, 보조금 감축을 통한 재 정수지 개선 노력 등을 평가하여 요르단의 국가신용도 등급을 전년과 동일한 5등급으로 유지함.
- 반면 S&P는 요르단에 대한 해외원조 감소, 2011~12년 교역규모 축소 및 시리아 내전에 따른 재정부담 등을 근거로 2013년 5월 요르단의 국 가 신용등급을 BB에서 BB-로 1단계 하향 조정함.
- Moody's도 2013년 6월 지속적인 재정수지 적자, 중동 지역의 정세 불 안이 국내 정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, 저조한 경제성장 등을 이유로 요르단의 신용등급을 Ba2에서 B1으로 2단계 하향 조정하였음.

< 표 3 >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등급	종전 평가등급
수출입은행	C3 (2013. 9.)	C2 (2012.12.)
OECD	5등급 (2014. 1.)	5등급 (2013. 1.)
S&P	BB- (2013. 5.)	BB (2012. 7.)
Moody's	B1 (2013. 6.)	Ba2 (2012. 2.)



## □ 주요 ECA의 지원태도

- 미국 EXIM: 전액 인수 가능하나 신용한도 적용
- 영국 ECGD: 전액 인수 가능
- 독일 Hermes: 단기 전액 인수 가능

## 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□ 국교 수립: 1962. 7. 26	(북한과는 1974. 7. 5 수교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

- □ 주요 협정: 무역협정(1972), 문화협정(1977), 경제-기술협정(1977), 항공협정 (1978),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(2000), 투자증진-보호협정(2004), 이중과 세회피탈세방지협정(2004), 관광협력협정(2005), 원자력협력협정(2008)
- □ 우리나라와의 2013년 교역규모는 13.8억 달러로 전년 대비 5.5% 감소
  - 수출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약 13.2억 달러, 수입은 기 타석유화학제품과 비금속광물을 중심으로 약 7천만 달러를 기록함.
- □ 우리나라의 대 요르단 해외직접투자는 2014년 3월 말 기준 신규법인 수 20건, 총투자금액 1,596만 달러에 불과함. 그러나 최근 전력 부문을 중심으로 주요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.
  - 한국전력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은 2012년 2월 요르단 국영전력공사 (NEPCO)가 국제입찰로 발주한 600MW급 IPP-3 디젤내연발전소(총사업비 8억 달러)의 건설운영사업자(BOO 방식)로 최종 선정되었음.
    - 아울러 롯데건설은 본건과 관련하여 2012년 10월 총 공사비 5.5억 달러의 발전소 EPC(설계-구매-시공) 계약을 NEPCO와 체결하였음.
  - 한국전력은 2013년 1월에도 요르단 광물에너지자원부가 발주한 Fujeij 풍력발전소(총사업비 1.9억 달러) 프로젝트의 BOO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음.



○ 2014년 3월에는 한화건설이 요르단 최초의 MW급 태양광 민자발전사업인 12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(공사대금 2,400만 달러) 건설 계약을 NEPCO와 체결하는 등 우리 기업의 요르단 인프라 건설 진출이 계속되고 있음.

< 丑 4 >

한ㆍ요르단 교역 규모

(단위: 백만 달러)

	2012	2013	2014.1~5	주요 품목
수 출	1,396	1,317	669	자동차 및 그 부품
 수 입	69	67	36	기타석유화학제품, 비금속광물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# V. 종합의견

- □ 요르단은 만성적인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가 경제의 취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음. 그러나 작년부터 GCC 국가를 중심으로 한 FDI 유입 증가, 관광수입 회복으로 향후 3~4% 대의 경제성장이 전망됨. 아울러 보조금 폐지 등 재정지출 축소 노력으로 재정수지 적자 완화도 기대됨.
- □ Abdullah 국왕은 폭넓은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, 경제, 사회 전반에 걸쳐 점진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. 그러나 정치 개혁의 속도가 느리고변화의 정도가 미진해 야당이 의회선거 참여를 거부하고 있으며, 잇따른 보조금 폐지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등 사회, 정치적 불안요소가 잠재해 있음.
- □ 과거 리스케줄링 경험이 있으며 최근 총외채잔액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소 우려됨. 그러나 IMF의 대기성 차관 지원, 낮은 D.S.R 비중,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율의 하락세 등을 감안할 때 단기 외채상환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선임조사역 오경일 (☎02-3779-5720)

E-mail: oki1122@koreaexim.go.kr

